



혁명 전야

3.1혁명 여성이
오늘의 여성에게
민족, 자주 등불을 비추다

항일여성

5호 | 2019. 3.

(사)항일여성독립운동기념사업회

정종명의 어머니, 아들 3대에 걸친 항일투쟁

- 신영숙 본회 기획위원장

어디서든 어느 때든
누구 못잖은 인물
여결 정종명.
겉보기보다 더
서글서글하고
넉넉한 마음
전문인 산파로
아낌없는 동정심

출생지 출생연도조차
분명치 않은 여성
배화여학당을 중퇴하고
박씨와 17세에 혼인
정 붙이지 못하다
남편 병사 후
19세에 낳은 아들과
친정으로...
교회전도사 되어
불행한 여성들을 만났다.

자립하기 위해
간호학교 졸업
산파 자격 얻고
밤과 낮도 없이
멀고 가까움
빈부를 가리지 않고
아이 낳는 여성에게로.
자신도 살고
여성도 살리기 위해

가난으로 공부 못 하는
여성에게는 일찍이
조선여자고학생상조회 만들어
주경야독 하며
사회 의식

여성의식 키우고
재봉일 배우고 가르쳐
상품 만들어 팔기도
생활을 위해 몸부림쳤다.

조선여성동우회를 거쳐
여성 통합체 근우회까지
사회주의 남성들과
어깨를 겨루며
민족과 여성을 위해
열심히 싸우고 또 싸웠다.

천두상과 재혼 중에도
운동선상에서 만나고
헤어진 첫 남편 신철의
병간호도 지극 정성
누구라도 수인 되면
뒷바라지 사양 않고
운동가들의
큰 누님, 어머니로
알뜰히 돌보고
살뜰히 보살폈다
운동계의 대모답게

어머니 박정선
3.1만세시위에 참여
1년간 옥고 치른
여성독립운동가
그 딸 정종명!
1930년 서울여학생만세시위
검거되었다
1931년 4월 재구속, 3년형
옥중에서도 산바라지
1935년 7월에야
서대문형무소를 나왔다.

젊고 열성적인 외아들
항일투사 박홍제
1930년 11월
1년 6개월 수감 중에
어머니 정종명과 만남.

항일에 발 벗고 나선
3대에 걸친 희생과 수난
용감하고 정의로운
운명처럼 정해진
삶과 투쟁의 나날

사회주의 운동도
여성운동도
가리지 않고 화통하게
몸 사리지 않고 거뜰하게
당당히 앞으로 나가지만
뒤 돌아보지 않았다

해방과 남북분단
님의 소식은 종적 없더니
그리고 열과 성을 다하고
자신을 아낌없이
바쳤건만
그 아름다운 흔적은
간데 온데 없더니

오늘에서야 빛을 띤
여성독립운동가로.
지금도 늘 그리하듯
어디선가
민족과 여성을
지켜보고 있으리

* 2015년 간행된 줄거 『여성이 여성을 노래하다』의 '정종명(1896?~ ?)'이 2018년 말 정부에서 서훈(애국장)되어 조금 수정한 것입니다.
어머니도 유공자(애족장)이지만, 아들은 아직 안 댔습니다.

목차

- 04 인사말 김희선 이사장 “3.1혁명 100주년과 창립 5주년 기념에 부쳐”
- 06 2019년 3월 1일 **항일여성독립운동가** 서훈 추서자
- 08 **항일여성독립운동가** 이화림 지사를 통해서 본 서훈 방향
- 10 2.8 독립선언과 항일여성
- 12 2.8 독립선언과 3.1 혁명 100주년 기념 항일독립운동여성상 제막 ‘오늘 그들 여기에’
- 18 (사)항일여성독립운동기념사업회 광주전남지회 발족기념
항일여성독립운동가 초상화 전시 및 심포지엄
- 19 3.1 혁명 100주년과 창립 5주년 기념 - 2.8독립선언과 항일여성 세미나
- 20 **최초 여성광복군** 2019년 달력 발행
- 22 중국 동북지역 **항일여성독립운동가** 자료조사 및 국외네트워크 교류사업
- 23 수협 MOU체결 기념 **김임권 회장 인터뷰**
- 26 후원 회원 명단

발행일 2019년 3월 25일 통권 5호

발행인 김희선

발행처 (02579)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왕산로 53 (용두동 232-20) 사숙재회관 402호

편집 편집부

디자인 인쇄 디자인포인트

“3.1혁명 100주년과 창립 5주년 기념에 부쳐”



(사)항일여성독립운동기념사업회 이사장 김희선

안녕하십니까.

올해는 일제에 대해 대한독립을 선언하고 온 겨레가 힘을 모아 항일투쟁을 전개한 3.1혁명 100주년이 되는 해이며, 항일여성 본회 창립 5주년이 되는 실로 뜻 깊은 해입니다. 3.1혁명의 정신을 더욱 의미 있게 기리는 올해를 맞이하며 이사장으로서 본인의 감회도 정말 크고 남다른습니다. 지난 5년간 우리 회원들은 물론 사회 각계각층의 여러분들께서 아낌없는 관심과 지원 덕분에 꾸준히 활동을 해왔습니다.

특히 이번 2월 8일에 건립한 ‘혁명전야 항일여성상’은 본회의 활동의 성과로 회원들과 후원자들에게 자긍심을 갖게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 조형물은 ‘여성독립운동가’라고 하면하면 유관순열사 한분밖에 모르는 잘못된 사회 인식을 불식시키고, ‘혁명전야 항일여성상’은 수많은 여성들의 참여에 의해 우리가 독립을 쟁취하였음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이기도 합니다. 즉 1919년 2.8도교독립선언 이후 준비된 여성들의 대거 참여로 3.1혁명에 기폭제가 되어 대한 여성들의 사회적 활동과 역할을 근본적으로 바꾸어 놓았습니다. 남성들과 어깨를 나란히 한 그들이 있었기에 조국과 민족을 되찾을 수 있었음은 한국인이자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일 것입니다. 이것을 널리 알리고 공감하기 위해 서울의 시청 맞은 편 배재어린이공원에 **항일여성상**을 세웠습니다. 정성껏 제작해주신 김운경, 김서경 작가님께 감사드리고 또 이같은 좋은 장소를 배려해주신 서울 중구청장 서양호청장님에게 깊이 감사드립니다. 앞으로 여러 곳에 이같은 항일여성상이 계속 건립되어 많은 한국인들의 울곧은 역사의식, 평화와 자주독립을 사랑하는 정신이 단단히 뿌리내리기를 기대해봅니다. 오늘의 시대정신은 항일여성들의 정신과 활동이 있었기에 가능한 것이었습니다.

2014년 3월 1일, 본회 창립 후 5년의 시간 속에 초심을 잃지 않고 앞서가신 항일여성독립운동가들을 발굴하고, 그 정신을 계승함으로써 한국 사회의 발전과 더불어 남북통일에 기여할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달려왔습니다.

다. 이 같은 취지를 살리기 위해 저희 임원과 회원들이 한 마음으로 노력해왔습니다. 그 결과 창립 4년만에 법인체가 되었고, 2015년 탑골공원에서 **대한독립만세 플래쉬몹**, 2016년에는 독립운동 퍼포먼스 **왜놈대장 보거리**, 2017년 촛불광장에서 서대문형무소까지 청소년들이 항일여성 초상화를 들고 행진한 **항일여성독립운동가 초상화 대행진**, 2018년 8.15 광복절에는 동대문인 흥인지문 앞에서 **항일여성독립운동가 제1회 추모문 화제** 등을 거행하였습니다. 프로그램에는 매년 함께 해온 추모 헌공 차례(화운차문화협동조합 이사장)와 청소년들의 랩 대회, 연극제도 있어 큰 호응을 얻었습니다. 이렇듯 본회는 묻혀지고 잊혀진 항일여성들의 정신을 청소년들에게 알리는 역사문화활동을 전개해 왔습니다. 그리고 50명의 화가가 150여 분의 항일여성독립운동가 초상화를 그려 **“오늘 그들 여기에”**라는 주제로 지방 순회 전시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창립 당시 13,268명의 유공자 명단에 여성은 241명으로 겨우 1.8%에 불과하였으나, 2017년 8월에는 14,651명 중 292명으로 2%, 이번 3.1혁명 100주년을 기하여 총 15,511명 안에 433명이 되어 2.8%로 증가하였습니다. 특히 2017년 새로 포상된 독립운동가 75명 중 여성이 7명(9%), 이번에는 333명 중 75명의 여성(23%)이 발굴되어 많은 증가를 보였습니다. 그동안 ‘항일여성과 독립운동’에 대한 수차례의 강의, 세미나, 토크콘서트 등 5년간 꾸준히 해온 본회 활동의 성과가 크게 반영된 것으로 자부합니다.

무엇보다도 금년 2월 26일에는 광주 전남지회(회장 명 진)가 성대하게 발족했습니다. **“오늘 그들 여기에”** 여성독립운동가 초상화 전시를 일주일간 광주 시청 로비에서 개막하였습니다. 또한 오후에는 광주전남지역 항일여성들이 어떻게 참여하고 발굴할 것인지에 대한 문제의식, 광주3.1혁명과 항일여성 등을 주제로 한 토론이 있었습니다. 앞으로 광주전남지회의 활동이 3.1혁명과 5.18정신이 하나가 되어 항일여성독립운동 발굴에 크게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중국 동북지역 항일여성독립운동가 자료조사 및 국외네트워크 교류사업”의 일환으로 지난 3월 12일부터 15일까지 연변 자치주와 흑룡강성 목단강시를 다녀왔습니다. 신임 송형중 상임이사과 기획위원들이 함께 가서 목단강시의 8년투강기념비를 비롯하여 운동주의 명동학교 등 항일유적지와 박물관 등을 답사하였습니다. 또한 연변 대학교 민족연구원(원장 박금해) 및 인문사회과학원 사학과 교수들과 자료 조사와 연구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를 함으로써 보람찬 시간을 가졌습니다. 앞으로의 협력과 교류를 기대하면서 부듯한 마음으로 돌아왔습니다.

이러한 사업을 한 지난 세월들은 모두 회원님들의 항일여성에 대한 열정과 사랑의 소산이었습니다.

그동안 초상화 제작에 동참해주신 화가 여러분들, 전시와 공연을 위해 노력을 아끼지 않으시는 예술가 스태프들, 그리고 함께해주신 여러 임원들과 회원 모든 분들께 심심한 감사를 표합니다. 앞으로도 본회는 항일여성들의 희생적 삶을 고양하고 그 시대정신에 따라 사회, 문화가 살아있는 역사가 되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합니다. 많은 지지와 성원을 보내주시리라 믿고 바라마지 않습니다. 고맙습니다.



2019년 항일여성독립운동가 서훈 추서자

2019년도 항일여성독립운동가 포상 명단

추서일	인 원
~2018.11.17.	358
2019.03.01.	75
합계	433

2019.03.08.

순번	성명	한자명	출생연도	운동계열	포상훈격	생존여부	본적
1	강경옥	姜敬玉	1851	국내항일	건국포장	사망	경상북도안동
2	강의순	姜義順	1912	학생운동	대통령표창	미상	서울산수
3	강지성	康至誠	1900	3.1운동	대통령표창	미상	전라남도목포
4	고연홍	高蓮紅	1903	3.1운동	대통령표창	미상	제주도성내
5	구명순	具命順	1900	3.1운동	대통령표창	사망	경상남도김해
6	김계향	金桂香	1909	학생운동	대통령표창	미상	경상남도부산
7	김동희	金東姬	1900	학생운동	대통령표창	미상	경기도장단
8	김보원	金寶源	1888	국내항일	대통령표창	사망	평안남도대동
9	김복희	金福熙	1903	3.1운동	대통령표창	사망	충청남도아산
10	김성재	金成才	1905	학생운동	대통령표창	미상	황해도장연
11	김숙현	金淑賢	1913	학생운동	대통령표창	미상	황해도해주
12	김우락	金宇洛	1854	만주방면	애족장	사망	경상북도 안동
13	김지형	金芝亨	1911	학생운동	대통령표창	미상	미상
14	김진현	金鎭賢	1909	학생운동	대통령표창	미상	제주도신좌
15	남영실	南英實	1913	국내항일	대통령표창	미상	경상북도대구
16	남윤희	南潤姬	1912	학생운동	대통령표창	미상	전라북도익산
17	남인희	南仁熙	1914	국내항일	대통령표창	미상	서울신교
18	문또라	文또라	1877	미주방면	건국포장	미상	미상
19	문봉식	文鳳植	1913	학생운동	대통령표창	미상	경기도수원
20	민금봉	閔今奉	1913	학생운동	대통령표창	미상	충청북도청주
21	민부영	閔富寧	1913	학생운동	대통령표창	미상	경기도 부천
22	민인숙	閔仁淑	1912	학생운동	대통령표창	미상	충청북도음성
23	민임순	閔任順	1913	학생운동	대통령표창	미상	충청남도대전
24	민함나	閔함나	미상	미주방면	애족장	사망	미상
25	박계월	朴桂月	1909	학생운동	대통령표창	사망	전라남도화순
26	박금덕	朴金德	1912	학생운동	대통령표창	미상	황해도해주
27	박금숙	朴錦淑	1915	국내항일	대통령표창	미상	경상북도안동
28	손경희	孫慶喜	1912	학생운동	대통령표창	미상	경기도양평
29	손영선	孫永善	1902	학생운동	대통령표창	미상	황해도장연
30	신애숙	申愛淑	1910	학생운동	대통령표창	미상	전라남도영광
31	신일근	辛一槿	1913	학생운동	대통령표창	미상	경기도고양

순번	성명	한자명	출생연도	운동계열	포상훈격	생존여부	본적
32	신준관	申俊寬	1913	학생운동	대통령표창	미상	미상
33	심상순	沈相順	1911	학생운동	대통령표창	미상	전라북도 익산
34	안혜순	安惠順	1903	중국방면	건국포장	사망	평안북도 의주
35	양애심	梁愛心	1990	국내항일	대통령표창	미상	평안북도 선천
36	양태원	楊泰元	1904	3.1운동	대통령표창	미상	경상북도 경주
37	양학녀	梁鶴女	1912	학생운동	대통령표창	미상	함경남도 북청
38	오수남	吳壽男	1910	학생운동	대통령표창	미상	서울 광희
39	오형만	吳亨萬	1913	학생운동	대통령표창	미상	황해도 송화
40	왕종순	王宗順	1905	학생운동	대통령표창	사망	강원도 철원
41	유경술	俞庚戌	1911	학생운동	대통령표창	미상	서울 익선
42	유순덕	劉順德	1913	학생운동	대통령표창	미상	황해도 해주
43	윤경옥	尹璟玉	1902	학생운동	대통령표창	미상	강원도 춘천
44	윤마리아	尹馬利亞	1909	학생운동	대통령표창	사망	경기도 강화
45	윤복순	尹福順	1911	학생운동	대통령표창	미상	서울 충신
46	윤순희	尹順嬉	1912	학생운동	대통령표창	미상	경기도 포천
47	이갑술	李甲述	1906	학생운동	대통령표창	미상	경상남도 울산
48	이경희	李敬希	1907	학생운동	대통령표창	미상	서울 체부
49	이계원	李癸媛	1906	학생운동	대통령표창	미상	강원도 철원
50	이남규	李南奎	1903	학생운동	대통령표창	미상	강원도 통천
51	이남숙	李南淑	1903	3.1운동	대통령표창	미상	경상북도 대구
52	이봉금	李奉錦	1903	3.1운동	대통령표창	사망	전라남도 순천
53	이부성	李斧星	1908	학생운동	대통령표창	미상	경기도 광주
54	이수복	李壽福	1911	학생운동	대통령표창	미상	충청남도 논산
55	이 순	李 順	1913	학생운동	대통령표창	사망	전라남도 광주
56	이신천	李信天	1903	학생운동	대통령표창	미상	황해도 장연
57	이영신	李英信	1908	학생운동	대통령표창	미상	강원도 정선
58	이영희	李英嬉	1912	학생운동	대통령표창	미상	함경남도 홍원
59	이용녀	李龍女	1904	학생운동	대통령표창	미상	황해도 장연
60	이정숙	李貞淑	1898	중국방면	애족장	사망	황해도 금천
61	장상림	張相林	1913	학생운동	대통령표창	미상	경기도 인천
62	장성심	張成心	1906	국내항일	건국포장	사망	황해도 봉산
63	전어진	全於眞	1911	학생운동	대통령표창	미상	전라북도 익산
64	정귀완	鄭貴浣	1913	학생운동	대통령표창	미상	충청남도 대전
65	정태이	鄭泰伊	1902	학생운동	대통령표창	미상	경상북도 안동
66	주말순	朱末順	1915	학생운동	대통령표창	사망	전라남도 광주
67	지은원	池恩源	1904	학생운동	대통령표창	미상	강원도 춘천
68	차은애	車恩愛	1914	학생운동	대통령표창	미상	서울 연지
69	천소악	千小岳	1913	학생운동	대통령표창	미상	경상남도 마산
70	최덕임	崔德姪	1912	학생운동	대통령표창	미상	경기도 강화
71	한보심	韓寶心	1912	학생운동	대통령표창	사망	전라남도 보성
72	한연순	韓連順	1898	3.1운동	대통령표창	미상	경상북도 대구
73	함애주	咸愛主	1913	학생운동	대통령표창	미상	평안북도 의주
74	홍금자	洪金子	1912	학생운동	대통령표창	미상	충청북도 충주
75	황혜수	黃惠壽	1877	미주방면	대통령표창	사망	평안북도 의주

항일여성독립운동가

이화림 지사를 통해서 본 서훈 방향



- 일시 2018년 12월 19일(금) 15:00~17:30
- 장소 국회의원회관 제2간담회실
- 발표 「항일여성독립운동가, 이화림을 말한다」
(박경철 충남연구원 책임연구원)
- 토론 김형목(독립기념관)
황후연(국가보훈처)
윤정란(서강대학교)

〈항일여성독립운동가 이화림 지사를 통해서 본 서훈 방향〉 발표문

항일여성독립운동가 이화림을 말한다

박경철(충남연구원 책임연구원)

이화림 지사는 1905년 1월 5일 평양에서 평범한 서민의 자식으로 태어나 3.1만세운동을 계기로 독립운동에 참여했다. 그 후에도 오빠들을 도와 독립운동을 계속하던 중 일경이 추적해 오자 오빠들이 먼저 떠난 중국

으로 망명한 후 김구 선생의 비서로 한민애국단에서 활동했다.

역사의 중요 순간에 이화림 지사가 있었다. 윤봉길 의사의 홍커우공원 폭탄투척사건을 도왔고, 이봉창 열사가 일본천황 폭살을 위해 일본으로 갈 때

폭탄을 넣는 속고쟁이를 만들어 주기도 했다.

상하이 홍커우공원 폭탄투척사건 이후 독립운동이 소강상태에 들어가자 이화림 지사는 광동의 중산대학에 간호학을 배웠고 이후 타이항산의

영웅 윤세주 열사와 약산 김원봉 선생의 조선의용군에 참여하며 난징, 충칭, 꾸이린, 타이항지구, 옌안, 등 중국 전역을 돌며 독립투사들을 치료하고 그들과 그들 가족을 돌봤다.

옌안에서는 무정 장군의 권유로 중국의학대학에 편입해 의학공부를 하다 해방을 맞이했지만 하던 공부를 마저 해야 해서 옌안에 남았다. 의대를 졸업 후에는 중국 동북지역의 옌벤 의학원 등에서 근무하며 아픈 사람들을 돌봤다.

그러던 중 한국전쟁이 나자 중국 정부는 너희 나라에서 전쟁이 났으니 가서 사람을 돌보라고 해서 북한군 의료지원단에 파견되어 위생소 소장으로 근무했다. 전쟁의 포화속에서 부상당한 북한군들을 치료하다 본인도 결국 폭격을 당해 부상입고 다시 중국 선양으로 들어와 치료를 받다 결국 다시는 조국으로 들어오지 못하고 중국에 남게 되었다.

그 후 이화림 지사는 중국에 남아 중국 정부기관과 연변조선족 자치구에서 활동도 하며 조선인의 자립과 자치를 위해 일했다.

조선동포들은 그를 존경해 그는 옌벤자치주 당대표까지 오르기도 했다. 하지만 갑작스레 닥친 문화대혁명으로 모든 것을 잃었다. 다행히 문혁이 끝나고 복권은 났지만 이미 몸과 마음은 피폐해져갔다.

중국정부에서는 이화림 지사를 환경이 좋은 대련으로 보내 그곳에서 요양을 하며 노년을 보낼 수 있게



배려를 했다. 그곳에서 이화림 지사는 조선인사회의 원로로 여러 역할을 했으며 평생 모은 돈을 조선인 아동을 위해 기부했으며 다롄에서 남한과 북한을 바라보며 평생 조국의 통일과 번영을 희망했다. 그리고 1999년 2월 10일, 한 편의 대하드라마 같은 이화림 지사의 삶은 막을 내렸다.

다행히도 이화림 지사는 생의 마지막 순간에 자신의 평생의 독립운동의 역사를 기록한 <정도征途: 머나먼 여정>을 남겼다. 중국역사기록기관의 작가가 중국어로 기록한 이 회고록을 필자가 어렵게 찾아내 후배와 함께 번역해 2014년 <이화림 회고록>이라는 제목으로 세상에 내놓게 되었다.

이화림 지사는 아직 독립운동 서훈을 받지 못하고 있다. 북한군으로 참전했다는 것이 걸림돌이라 생각하는 것 같다. 하지만 이화림 지사가 사람을 죽인 것도 아니고 의사로서 조국 병사의 생명을 구하는 본분을 다했을

뿐인데 못한 후손들은 아직도 이념의 잣대로 재단을 하고 있는 것 같다. 우리가 저 시대에 태어났다면 우리는 어떻게 했을까? 사람의 목숨을 구하는데 이념이 필요할까?

독립군을 토벌했던 박정희, 백선엽 등은 한국전쟁을 계기로 대통령도 하고 별도 달고 훈장도 달고 온갖 부귀영화를 누렸는데 평생 목숨 바쳐 독립운동을 하고도 인도주의 차원에서 북한군 의료활동에 참여했는데 우리 후손들이 그에게 독립운동 서훈도 주지 않는 것이 남북화해와 통일의 시대에 과연 옳은 일일까?

비단 이화림 지사뿐만만의 문제는 아니다. 무수히 많은 독립지사들이 이념이라는 이유로 여성이라는 이유로 무관심과 차별 속에 묻혀버렸습니다. 이제는 다시 정의로운 역사를 만들어야 한다. 이화림 지사를 통해 우리나라 독립운동 서훈의 방향을 다시 한번 되물었으면 한다.

2.8 독립선언과 항일여성



- 일시 2019년 1월 18일(금) 14:00~16:00
- 장소 프란치스코 교육회관 430호
- 발표 「2.8독립선언과 항일여성 - 재일조선여자유학생을 중심으로」
(신영숙 본회 기획위원장)
- 토론 정현주 ((사)역사·여성·미래 공동대표)
신주백 (한림대학교 일본학연구소 HK연구교수)



〈2.8 독립선언과 항일여성〉 발표문

「2.8독립선언과 항일여성 - 재일조선여자유학생을 중심으로」

신영숙(본회 기획위원장)



〈본고의 목적〉

1919년 2월 일본 도쿄에서 조선유학생들이 뜻을 모아 거행한 2.8독립선언과 독립운동은 당시 청년학생에 의한 민족 해방운동이었다. 이에 적극적으로 동참한 여자유학생 또한 무시할 수 없는 민족의 일원임을 천명하고 실행에 나섰다. 이같은 청년운동과 여성운동을 통하여 3.1혁명으로 이어지는 역사적 맥락과 의미, 그 시대정신을 되새겨보려고 한다. 특히 재일조선여자유학생들의 활동을 중심으로 살펴보는 것은 오늘날의 여성과 사회운동, 미투 위드 유 운동, 또는 평화와 정의를 추구하는 진보적 운동과 대비하여 한국사회에 시사하는 바가 있으리라 기대해본다.

〈내용〉

1919년 1월, 1차 세계대전을 마무리하기 위한 파리 강화회의에 민족자

결주의 원칙에 입각하여 한국 문제를 해결해줄 것을 호소하기 위해 1918년 12월 한국대표를 파견한다는 사실이 도쿄 유학생들에게 전해졌다. 이를 계기로 재일본 한국유학생들은 1918년 12월 말 망년회와 1919년 1월 초 웅변대회 등을 개최, 조국과 민족의 독립을 위한 실천운동을 전개할 것을 결의하였다. 이들은 독립선언서를 작성하여 일본정부와 귀족원, 중의원은 물론 세계 각국 대사·공사에게 보내기로 결정하고 운동을 전개하기 시작하였다.

2월 8일, 조선독립청년단의 이름으로 <2·8독립선언서>를 선포하고 한 달 이상 독립운동을 도쿄에서 펼쳤다. 이에 김마리아, 황에스터 등 여자유학생들도 적극적으로 함께 참여하였다. 이후 여학생들은 선언서를 휴대하고 국내에 들어와 여성들에게 항일독립운동에 참여할 것을 독려하고, 큰 자국

을 주는 촉매제 역할을 성실히 하였으며, 3·1혁명에의 여성 참여를 본격적으로 하기에 이르렀다.

2.8독립운동을 준비하는 학우회에서 당시 여자유학생들은 “독립을 갈망하는 마음에 남녀가 어찌 다르겠느냐, 수레는 한쪽 바퀴만으로는 달리지 못한다”고 토로한 황신덕의 열변에 공감하여 적극적으로 참여하였다. 다시 말하면 여자유학생들은 남녀 동등한 자격으로 독립운동, 사회 정치참여 등을 주장하며, 마침내 3.1혁명과 임정의 참여 여성으로 성장, 발전하는 확고한 디딤돌(총 유학생의 10% 정도)이 된 것이다. 남녀 동등한 국민 된 자격(사회적 평등권)을 선언한 것은 어쩌면 이때가 처음이 아닌가 싶다.

이후 여성들의 독립운동은 교사와 여학생 등 지식엘리트(신여성) 중심에서 1919년 전국적이고도 거족적인 3.1혁명을 기점으로 일반 대중 여성들에게로, 참여의 폭을 대거 확장시켜 나갈 수 있었다. 임정 초기 활동한 여성 30여명을 비롯하여, 지속적으로 여성 독립운동가의 증가와 성장을 이루었으며, 1940년대에는 광복군과 의용대로 역시 노선을 달리하였다 하더라도 1945년 광복 때까지 항일여성독립운동에 헌신하였다.

2.8 독립선언과 3.1 혁명 100주년 기념 항일독립운동여성상 제막 ‘오늘 그들 여기에’

일시 2019년 2월 8일(금) 14:00 | 장소 항일독립운동여성상 공원(배재어린이공원)



행사 일정



구분	시 간		내 용	
14:00~14:05	5′	1부	개 회 국민의례	홍정석 (사)항일여성독립운동기념사업회 이사
14:05~14:35	30′		내빈소개/인사말	김희선 (사)항일여성독립운동기념사업회 회장
			격려사/축사	함세웅 항일여성독립운동가 상징조형물 건립위원회 공동회장 서양호 서울중구청장 외 참석 인사
14:35~14:40	5′		경과보고	박창식 항일여성독립운동가 상징조형물 건립위원회 운영위원장
14:40~14:50	10′		기념공연 : 닛(to. 조마리아)	걸크러쉬(김희연, 김현우) 제1회 청소년 빠른말노래(랩) 자랑대회 대상 수상팀
14:50~15:00	10′	2부	취지문 낭독 기념촬영	성세정 서울홍제초, 권승태 양평 수입초 류호원, 박환희 대광중 학생회 김민지 외 이화여고 역사동아리 회원들 이태희 외 평화나비 네트워크 회원들
15:00~15:05	5′		2.8 독립선언서 결의문 낭독	이현정, 정수윤 대광중학교 학생회 부회장
15:05~15:20	15′		제 막 기념촬영	제막(구호와 만세 삼창)
		기념촬영		

인 사 말



안녕하십니까

오늘 이렇게 많은 분이 일제강점기 항일여성들의 목숨을 바친 그 투쟁정신과 그 모습을 소중히 여기시어 귀한 모든 일정을 뒤로하시고 이 자리에 함께해주셔서 자리를 빛내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의 가부장제사회에서 여성자신을 드러내지 않고 국가와 민족을 위해 희생하신 유·무명의 여성독립운동가들을 역사 속에서 살려내어 기리는 일은 오늘을 사는 우리들의 역사적 책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분들의 희생적 삶은 오늘 우리의 현재고 미래라 하겠습니다.

이러한 의미로 항일여성독립운동기념사업회에게 자주독립은 현재진행형이다 라는 역사인식을 바탕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오늘 그들 여기에”

오늘 이 자리는 항일투쟁의 역사와 함께 살아 숨 쉬는 곳입니다

우리의 항일투쟁의 치열한 정신적 토대가 된 2.8 독립선언과 3.1 혁명투쟁의 정신은 지금 이 순간 촛불정신의 뿌리가 되어 우리의 삶에 생생하게 살아 있습니다.

이 배재어린이공원과 정동거리는 1919년 3~4월에 남녀학생들이 자주독립만세를 외치고 다닌 역사적 상징이 깃든 곳입니다.

이제 “오늘 그들 여기에” 당시 여학생들이 항일 독립만세운동을 준비하는 모습의 “거사전야”가 세워집니다. 참석자 여러분들의 한결같은 나라사랑정신으로 큰 격려와 함께 모두가 제막식에 함께 하시길 기대합니다.

미래를 내다보는 혜안은 지난 역사의 교훈을 통해 생긴다고 합니다.

오늘 행사를 위해 지난 1년간 최선을 다해주신 박창식 운영위원장과 본회 남상만 처장, 이승환 처장, 기획위원님들에게 깊은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꼭 밝혀 드릴 것은 스토리텔링이 되는 항일독립운동여성상을 김서경, 김운성 두 작가가 헌신적으로 제작하여 세우게 되었음을 이 자리를 빌려 뜨거운 감사를 드립니다.

더불어 순수한 시민들의 모금으로만 이 항일독립운동여성상이 세워졌고, 현재도 모금운동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동참을 부탁드립니다.

오늘 세워지는 이 항일독립운동여성상이 미래를 향한 역사성을 다하기를 이 자리에 함께하신 여러분들과 희망하며 감사인사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항일여성독립운동가 상징조형물 건립위원회 공동회장 함세웅 이만열 김희선

경과 보고

2018. 1. 15. 항일여성독립운동기념사업회에서 이사와 기획위원을 보강하고 **〈항일독립운동여성상〉** 조형물을 제작 건립하기로 하다.
22. **〈항일여성상〉** 조형물 제작 건립을 위한 준비위원회를 구성하기로 하고, 기획위원 중 참석자를 중심으로 준비위원회를 구성하다. (준비위원회 : 김희선, 남상만, 박창식, 신영숙, 양혜경, 최진섭)
2. 5. 항일여성독립운동기념사업회 제5차 총회에서 조형물사업을 승인하다.
19. 기획위원회 회의에서 조형물 건립을 위한 운영위원회를 구성하고, 총회에서 결정된 사항의 실행을 위해 건립 장소, 작가에 대한 논의를 운영위원회에서 집행하기로 하다.
3. 7. 조형물 제작을 작가 김서경 김운성 님, 기획위원들이 모여 국내외 민족민주운동 관련 조형물 선례를 검토하다.
21. 항일독립운동여성상 조형물 취지문을 확정하다.
4. 12. 이희호 여사님 자택방문 - 항일여성독립운동가 상징조형물 건립위원회
이희호 선생님이 명예회장으로 수락
건립위원회 구성
- 명예회장 : 이희호(김대중 평화센터 이사장)
- 고 문 : 박순경(이대 명예교수), 박재승(변호사), 이해동(목사), 이효재(이대 명예교수), 지선(스님).
- 공동회장 : 함세웅(사단법인 향단연 회장), 이만열(전 국사편찬위원장), 김희선(본회 회장).
- 14~23. 항일여성독립운동가 상징조형물 건립 장소 모색. 국가보훈처 예산논의.
6. 25. 조형물 뒷면에 <대한독립여자선언서> 석판을 제작하기로 하다.
8. 28. 항일독립운동여성상 및 <대한독립여자선언서> 석판 건립에 대해 서울지방보훈처에서 현충시설 심의위원회 결과 통보 받다.
9. 3. 서양호 서울 중구청장을 방문하여 항일독립운동여성상 설치 장소 지원 요청.
11. 8. 서울 중구청 서양호 구청장으로부터 항일독립운동여성상 건립 장소로 배재어린이공원으로 결정되었음을 연락받음.
- 9~22. 김희선 회장, 남상만 처장 등 건립위원들이 답사 후 조형물 설치장소로 배재어린이공원을 확정하다.
12. 5. 건립운영위원회가 이사회에 조형물 장소로 배재어린이공원으로 결정됨과 작가의 작품 구상및 과정을 보고하다.
12. 11. 건립운영위원회 항일독립운동여성상 제막 행사 협의.
2019. 1. 6. 건립운영위원회 회의에서 조형물 명칭을 **“항일독립운동여성상”**으로 명명하여 발표하다.
11. 작가(김서경, 김운성) - 작품명 「거사전야」로 하다.
건립운영위원회가 《 2.8 독립선언과 3.1 혁명 100주년 기념 항일독립운동여성상 제막 행사》를 2019년 2월 8일 2.8 독립선언을 기념하여 배재어린이공원에서 시행하기로 결의, 행사준비위원회로 전환하여 제막 행사 제반사항을 논의 집행하다.
18. ‘2.8 독립선언과 항일여성’ 에 대한 세미나 개최.
22. 행사준비위원회, 제막 행사 현장 점검회의
2. 1. 행사준비위원회, 개회식 및 제막식 행사 점검회의

항일독립운동여성상 건립 취지문 “오늘 그들 여기에”

2.8 독립선언과 3.1혁명 100주년을 맞는 오늘, 그 어느 때보다 가슴이 뜨거워집니다.

민족의 자주독립을 위해 헌신하신 항일여성독립운동가들의 정신과 숨결이 우리에게 성큼 다가옵니다.

일제 강점기에 우리 선열들은 빼앗긴 나라를 되찾으려고 치열한 독립투쟁을 벌였습니다. 자유를 억압하고 고문, 학살을 자행하며, 경제 주권과 민족문화를 말살하는 엄혹한 상황에서 많은 선열들이 목숨을 걸고 싸웠습니다.

빼앗긴 나라를 되찾으려는 독립투쟁에 여성들은 남성 못지않게 적극적으로 참여했습니다. 항일여성들은 민중에게 자주독립 의지를 일깨우는 교육사업과 계몽운동, 문화운동을 적극적으로 벌였습니다. 또한 의병 투쟁 이후 의용대, 의열단, 광복군 등으로 무장투쟁에도 가담했습니다. 일본 관헌을 저격하고 반민족 행위자에게 사형선고문을 인쇄해 보내는 심리전을 벌였으며 밀정을 암살하고 일제 통치기구 시설을 폭파하는 데 참여했습니다. 군자금 모금, 군수물자 운반, 전단 배포, 정보 수집, 연락책, 쫓기는 도망자나 수배자에 대한 침식 제공 등은 말할 것도 없었습니다. 3.1 혁명 때는 학생과 교사는 물론, 노동자, 농민, 기생에 이르기까지 많은 여성들이 대대적으로 만세운동에 참여했습니다.

여성들이 항일독립투쟁에 참여하려면 남성보다 훨씬 강한 용기가 필요했습니다. 국권을 빼앗긴 데 따른 고통은 남녀가 따로 없이 겪었지만, 여성들은 뿌리 깊은 가부장제와 권위주의 때문에 더 큰 희생을 치러야 했습니다.

2.8 독립선언과 3.1혁명 100주년을 맞아 우리는 그날의 정신을 다시 생각합니다. 우리 선열들은 일제의 억압에 맞서 과감하게 떨쳐 일어났습니다. 선열들은 나라의 자주독립을 선포하고 인류의 평등과 평화로운 공존을 선언했습니다. 정치, 경제, 교육의 균등에 바탕을 둔 민주공화국을 공포하여 세계의 민족민주운동에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지난 100년 동안 우리는 사람이 사람한테 가하는 고통과 억압, 불의와 차별을 없애고자 끊임없이 노력해왔습니다.

그 결과 국권을 회복했습니다. 하지만 분단과 독재에 의한 경제사회적 불평등, 권위주의와 관료주의의 폐해를 충분히 극복하진 못했습니다. 국가의 주권이 바로 서고, 모든 사람이 차별 없이 더불어 행복한 삶을 누리며, 모든 나라와 민족들이 평화롭게 공존하는 세상을 만든다는 과제를 우리는 여전히 안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과제를 풀어나가는 노력의 하나로, 여성들의 항일독립운동을 기리고자 합니다. 항일여성독립운동의 정신은 오늘날 자주독립의 정신, 평화의 정신, 민주주의의 정신, 곧 우리의 시대정신으로 정의할 수 있습니다.

항일여성독립운동은 과거의 역사만이 아닙니다. 현재와 미래 사회에 우리의 사회 공동체를 한 단계 발전시켜 나가는 데 그 정신은 살아 움직이며, 큰 힘이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항일독립운동여성상을 만들어 여기에 세우는 이유는 바로 이것입니다. “오늘 그들 여기에, 우리와 함께”인 것입니다.

2019년 2월 8일

2.8 독립선언과 3.1혁명 100주년 기념

(사)항일여성독립운동기념사업회, 항일여성독립운동가 상징조형물 건립위원회

항일여성독립운동가 상징조형물 건립위원회

명예회장	이희호 (김대중 평화센터 이사장)
고 문	박순경 (이대 명예교수) 박재승 (변호사) 이해동 (목 사) 이효재 (이대 명예교수) 지 선 (스 님)
공동회장	함세웅 (사단법인 항일독립지사선양단체연합 회장) 이만열 (전 국사편찬위원장) 김희선 (사단법인 항일여성독립운동기념사업회 회장)
추진위원	강창일, 김상희, 김성환, 노응래, 민병두, 박범계, 박주민, 박찬대, 박홍근, 서영교, 설 훈, 송갑석, 심기준, 심재권, 안민석, 우상호, 유성엽, 유승희, 윤후덕, 이석현, 이종걸, 이찬열, 정동영, 정성호, 정세균, 제윤경, 조경태, 조정식, 천정배, 최경환, 황 희, 황주홍 (이상 국회의원) 김병국 (목사) 김삼웅 (전 독립기념관장) 김선현 (임정기념사업회 이사) 노명희 (교수) 문성근 (배우, 통일맞이 이사회 이사) 박경목 (서대문형무소역사관장) 박남식 (화운차문화협동조합) 손 윤 (의암손병희선생기념사업회) 유종일 (한국개발연구원 국제정책대학원 원장)
추진위원	유흥준 (대한민국 미술 사학자, 명지대 교수) 이덕일 (한가람역사문화연구소장) 이민석 (변호사) 이항중 (임청각 석주 증손) 임옥상 (화가) 임진택 (배우, 명창) 임헌영 (민족문제연구소 소장) 장병화 (임종국선생기념사업회장) 장유식 (변호사) 정동익 (사월혁명회 상임의장) 채수일 (목사) 퇴 휴 (스님) 황재형 (화가) 본회 이사 : 강정숙(교수), 김애영(한신대 명예교수), 박정희(청소년독서실관장), 신영숙(본회 기획위원장), 이상덕(교수), 이은주(전 전국야학협의회 의장), 이주한(역사학자), 이행자(전 서울시의원), 최성자(전 은광여고 교장), 홍정석(전 경기도의회 의원)
운영위원	박창식 (운영위원장) 강정숙, 김서경, 김운성, 김종도, 남상만, 박정희, 신영숙, 양혜경, 이구영, 이승환, 이은주, 이진석, 최진섭, 홍정석

(사)항일여성독립운동기념사업회 광주전남지회 발족기념
항일여성독립운동가 초상화 전시 및 심포지엄

초상화전시 '오늘 그들 여기에'

- **일시** 2019년 2월 26일(화) ~ 3월 5일(화)
- **장소** 광주광역시청 1층 시민홀

기념 심포지엄 “광주-전남 항일독립운동속의 여성들”

- **일시** 2019년 2월 26일(화) 14:00
- **장소** 광주광역시의회 4층 회의실



(사)함빛여성독립운동기념사업회

- | | |
|--------------------------|--|
| 창립
목
적

활동내용 | <p>2014년 3월 1일, 김희선 (전)국회의원이 항일여성독립운동 조명의 필요성을 제기하며 활동 시작, 2017년 국가보훈처 소관 비영리법인으로 허가</p> <p>여성독립운동의 역사와 관련된 다양한 연구, 선양, 문화 활동을 통하여 여성독립운동 역사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함</p> <p>기념사업, 연구출판 교육사업, 홍보문화사업, 교류지원사업 등</p> |
|--------------------------|--|

(사)항일여성독립운동기념사업회 광주지회

- 회 장 명 진(알람인권작은도서관장)
- 부회장 박태균(노사모 전국운영위원장)

문영위원회

- 이경순(전남대 명예교수), 김행자(광주학생독립운동 여학도기념역사관장)
박상희(광신대 교수), 천신애(광주 남구의회 의원)
정소영(재외동포연구원 사무국장)



3.1 혁명 100주년과 창립 5주년 기념



- 일시 2019년 3월 1일(금) 14:00
- 장소 항일독립운동여성상 공원(배재어린이공원)



최초 여성광복군

2019년 달력 발행

1월



김정숙(金貞淑)
1916~2012, 평남 용강

2월



김효숙(金孝淑)
1915~2003, 평남 용강

3월



민영주(閔泳珠)
1923~생존, 서울 종로

4월



신순호(申順浩)
1922~2009, 충북 청원

5월



신정숙(申貞淑)
1910~1997, 평북 의주

6월



안영희(安英姬)
1925~1999, 평남 진남포

CALENDAR

7월



오광심(吳光心)

1925~1999, 평남 진남포

8월



오희영(吳姬英)

1924~1969, 경기도 용인

9월



유순희(劉順姬)

1926~생존, 황해도 황주

10월



전월순(全月順)

1923~2009, 경북 상주

11월



조순옥(趙順玉)

1923~1973, 경기도 연천

12월



지복영(池復榮)

1920~2007, 서울 종로

중국 동북지역 항일여성독립운동가 자료조사 및 국외네트워크 교류사업

일시 2019년 3월 1일(금) 14:00 | **장소** 중국 동북지역 목단강, 도문, 훈춘, 연길, 용정



목단강 8년 투강비 한중 공동항일투쟁의 상징물
1938년 일본군에 맞서 항거 목단강에 투신한 동북항일연군
여성대원들의 희생을 기리기위해 세워짐
8명의 대원중 김순애와 안순복(대장) 2명은 조선인



연변후대사랑과사회봉사를실천하는모임(후사모)의
임원 청년회원들과 함께한 간담회.
회장 김태국 교수가 설명하고 있다.



연변대 민족연구원 박금해 교수와 강수옥, 김태국, 고승룡,
방미화교수와 예술학원 신광화, 한영희 교수등과 본 단체 회
장 김희선을 비롯한 임원들과 학술, 문화교류협력을 위한
간담회를 마치고



발해상경용천부 동경성터, 발해국의 수도 궁성터
대형건물 주춧돌, 기와, 석등을 발견
발해의 독자적인 문화형식을 보여주고 있다



수협 MOU체결 기념 김임권 회장 인터뷰

한국수산업의 발전 방향에 대하여

수산업협동조합

회장 김임권

우리나라는 삼면이 바다로 둘러싸여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수산업=경제라는 생각이 참으로 부족하다. 특히 수산업의 체계가 일제강점기에 하던 방식 그대로 운영되고 있다는 것에 놀라지 않을 수 없다. 그런던차 본회 대외협력 표대연, 사업부 이길용 각 위원장들이 수협과 항일여성사업회가 업무협약을 맺게 했다. 오늘 항일여성독립운동에도 깊은 관심을 갖고 계시는 김임권 회장 인터뷰를 통해 우리 수산업의 경제 중요성을 짚어보고 발전적인 방향을 찾아보고자 한다.

1 우리나라가 3면이 바다로 둘러싸여 있는데 수산업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고 아직까지 인력난 등 여러 문제가 있는데. 이런 현상이 어디에서 기인한 것이라고 보십니까?

네. 수산업이 말씀하신 것처럼 천시를 당하고 있구요.

우리수산업의 큰 문제가 선원이 굉장히 부족한 것인데 바다를 인식하는 것이 두려움의 대상, 피해야 할 대상으로만 바라보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생겼습니다. 바다를 삶의 터전이라기보다는 위험하고 불행이 잉태되는 막연한 두려움의 대상으로만 보고 있습니다. 또한, 소위 ‘뱃놈’이라는 말로 천대하는 문화가 아직도 존재합니다. 그래서 바다를 실제로 경험하기보다는 일단은 피해야 될 대상으로 바라보는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2 말씀하신대로 이런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된다고 보십니까?

통계청 발표자료에 따르면 2017년 어가소득은 4900만

원 수준으로 2013년 이후 꾸준히 성장하고 있습니다. 도시근로자 가구 대비 어가소득 비중도 2013년 70% 수준에서 2017년 82.3%를 기록하며 소득격차도 지속적으로 줄어들어가고 있습니다. 고등어잡이는 선단에 어선원으로 승선하면 대기업 직원 못지않은 연봉을 받을 수 있고 유능한 어로장이라면 연간 10억원 이상의 소득도 올릴 수도 있으며, 전국에 산재한 2000개에 가까운 어촌계 중에서 평균 가구당 소득이 역대 이상인 곳을 찾는 것도 어렵지 않습니다. 바다야말로 젊은이들이 도전해볼 만한 곳임에 분명하지만 문제는 시중의 인식에 있습니다. ‘돈이 안되고 몸이 힘들다’는 인식이 여전하고, 특히나 소위 ‘뱃놈’이라 부르며 바다에서 일하는 이들을 천시하는 사회 풍토도 한몫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 바다라고 하면 ‘눈물의 씨앗’, ‘비극의 원천’, 슬픔의 공간 등과 같이 부정적 이미지를 연상하는 것도 무시 못할 이유라고 봅니다. 다행히 최근에는 젊은이들을 중심으로 관심이 높아지는 추세고 실제로 성공한 젊은 귀어인의 사례가 속속 나오고 있어 앞으로 더욱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공무원 시험을 준



비하는 젊은이들만해도 30만명이 넘는다고, 청년실업률이 높고 일자리가 없다는 이야기는 오래전부터 들려도 선원을 구하는 것은 예나 지금이나 하늘의 별 따기처럼 느껴집니다. 아직도 배 타는 사람들을 ‘뱃놈’이라고 부르며 낮춰보고 직업의 귀천을 따지다 보니 좀처럼 해결하기 힘든 문제로 떠올랐지만 수산업이 비전있고 높은 소득을 올릴 수 있다는 점을 알리려고 계속 노력하고 있습니다.

3 그럼 이제 현재 수산업계의 해결해야 할 가장 큰 현안이 무엇이라고 보십니까, 그리고 우리 수산업이 일제강점기의 방식 그대로 하고 있다는 문제의식에 대해선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무엇보다도 자원회복이 대단히 시급한 문제입니다.

우리 수산업은 67조원 규모의 연간매출액을 기록하고 있는데, 이와 같은 부가가치 창출은 연근해 자원을 어획함으로써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바다는 바닷모래 채취, 갯벌 간척, 해상풍력발전, 발전소 냉온배수 배출 등 환경파괴 행위가 지속되면서 어자원이 급격히 감소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우리 수협이 바닷모래채취 금지를 결사적으로 요구하고 해상풍력발전 확대 반대 투쟁에 나서는 이유이며, 남북수산협력과 러시아 등 해외어장 진출을 역점 추진하는 이유는 궁극적으로 우리 한반도 연근해 어족 자원을 증강해서 자손만대에 물려줄 수 있는 지속가능한 수산업을 만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수산자원은 적

정 수준에서 어획이 이루어지면 복원력이 작용하여 지속적인 생산이 가능한 자율갱신적 성격을 갖고 있습니다. 하지만, 바닷모래 채취 등과 같이 광범위한 환경파괴로 복원력을 훼손시키거나 복원력을 넘어서는 무리한 어획이 이루어지면 자원 고갈은 피할 수 없게 됩니다. 환경파괴는 없어야 하고 동시에 복원력을 키워줄 수 있는 적정 수준의 어획량을 유지시켜야 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어업인이 주도하는 자율적 수산자원 관리 방안·연근해 어선의 해외어장 진출과 남북수산협력으로 돌파구를 찾고자 하고 있습니다. 이미 고등어를 주로 잡는 대형선망 어업인들은 막대한 비용손실에도 불구하고 자원회복을 위해 자율적으로 휴어에 참여해 지속가능한 수산업을 만들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민 입장에서 고기를 잡지 않는다는 것은 그 만큼 수입이 줄고 생계가 힘들어지는 것을 뜻하기 때문에 정부에서 그에 상응하는 지원책으로 뒷받침해주어야만이 자율적 휴어를 통한 자원 증식 효과를 달성해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일본의 어업침탈 과정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질문해주셨는데요. 고맙습니다. 실제 조선시대 말 어업의 침탈사는 기록에 많이 남아 있고 현실적으로도 극복해야 될 과제로 남아있다고 생각합니다.

4 수협 혼자서 모든 문제를 해결하기는 힘들 것 같은데 국회나 정부차원에서 지원이 있나요?

정부에서도 ‘수산혁신2030’ 등을 마련하고 국회에서도 바닷모래채취 금지 등에 대해서 성명서를 내는 등 다각적인 방안으로 수산업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국회의원이나 정부부처 수장 중에서는 수산인 출신이 한 명도 없는 실정입니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105만명에 이르는 수산인의 입장을 적극적으로 반영하고 대변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수산인 출신의 정관계 인사가 많이 늘어나 수산업계의 입장을 충실히 대변해주고 수산업발전이 뒷받침 됐으면 좋겠습니다.

5 회장이님 생각하시는 협동조합의 역할은 무엇인가요?

전통의 협동조직인 어촌계는 적어도 고려시대부터 존재해 온 것으로 추정되며, 수협은 이와 같은 협동운동의 전통 위에 존재해 온 전국의 수산관련 협동단체들이 1962년 제정된 수협법에 따라 조직되었고 어업 분야의 협동조합으로서 소생산자들의 경제적 사회적 지위향상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설립초기 수협은, 당시 어민과 어촌 발전을 막고 빈곤을 초래하는 원인으로 지목된 ‘객주’세력들의 횡포로부터 어민을 보호하기 위해 위판 및 공판 사업을 중심으로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어민들은 수협에 수산물을 위탁 판매함으로써 객주들로부터 독립적으로 생업을 영위할 수 있게 되었고 경제적 수탈로부터 보호받는 길을 열 수 있었습니다. 이후 수협은 어업인에게 필요한 자금 공급을 위한 은행, 상호금융 사업 등 신용사업과 재해재난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공제사업 등 어업인을 지원하기 위한 제반 사업을 수행하며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협동조합으로 성장해왔습니다. 이렇게 협동조합은 사회적 약자를 지켜내는 울타리와 같은 존재로 여러 가지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어민들이 기댈 수 있는 최후의 보루와도 같습니다. 수협이 바닷모래 채취 문제, 해상 풍력발전 건설 등의 문제에서 가장 먼저 앞장서서 싸워왔던 이유도 힘없는 어민을 대신해서 나설 수 있는 조직은 수협 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사회, 경제적 약자인 어민을 제대로 보호하려면 힘이 있어야 하는데, 힘이라는 것은 결국 재정적 지원이 얼마만큼이나 잘 뒷받침 되느냐에 달려 있는 문제입니다. 어렵고 힘들다고 걱정만 해서는 아무런 의미도 없을뿐더러, 배고픈 이에게 그저 배고프냐고 물을 것이 아니라 대접을 해줄 수 있는 능력을 갖추어야 옳은 것입니다. 그래서 “강한 수협, 돈 되는 수산”을 비전으로 내걸었고 수익성을 높여 이를 활용하는 협동조합을 만들고자 힘써왔습니다.

6 마지막으로 하고 싶으신 말씀이 있다면 하십시오

취임하면서 꼭 마음먹었던 것은, 우리 어른들이 지금 먹고 살고 있는 터전인 바다를 자손만대까지 물려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조부, 선친에 이어 3대를 이어가는 어업인으로서 그동안 바다 덕분에 먹고 살았지만 지금의 어장, 자원의 상태로는 앞을 장담할 수 없는 심각한 상황으로 보고 있습니다. 바닷모래채취 금지 등 해양환경파괴 저지와 자율적 수산자원관리 방안 마련, 연근해어선 해외 진출 등은 우리 대한민국의 바다를 자손만대가 누릴 수 있는 풍요로운 어장으로 만들어야겠다는 간절한 마음에서 혼신을 다해 노력해 왔던 일들입니다. 수협은 가난하고 어민들이 서로 힘을 합쳐 만들어낸 협동조합으로, 조직의 주인은 바로 어민인데요. 정작 주인 대접은 전혀 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지난 IMF구제금융 당시 대부분의 시중 은행들이 정부로부터 공적자금을 지원받았고 수협 역시 1조 1천억여원을 지원 받았지만 이를 해소하기 전까지는 수협은행에서 벌어들인 수익을 어민을 위해서 단 한 푼도 사용할 수 없는 제약이 가해지고 있습니다. 반면 연근해어업생산량은 반세기 전 수준으로 돌아가는 최악의 흉어를 겪는 상황에서 드러나듯이 어민이나 수산업은 생사의 기로에 서있다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이런상황에 있는 수협이 공적자금에 발 묶여 앞으로도 수년간 제 역할을 할 수 없다면 어민과 수산업이 회생불능 되지 않을까 염려됩니다. 따라서 수익성을 계속 높여서 충분한 이익을 창출하고, 공적자금 상환 후 이를 어민들을 위해 쓸 수 있는 선순환 구조를 만드는게 시급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야만이 우리 수협이 어민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을 주고 어민들이 믿고 기댈 수 있는 든든한 울타리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렇게 항일여성독립운동기념사업회와 어업계가 업무협약을 통해 우리나라 어업이 일제잔재로 운영되는 것에 대해 문제의식을 함께 가지시고 문제해결에 대한 인터뷰를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낌없으신 회원 여러분들의 후원에 감사드립니다.”

♡ 개인 회원 ♡

강성종 강영준 강원기 강정숙 국경복 김경미 김경순 김경실 김광희 김기봉 김동민 김명연 김명옥 김명주 김미희
김민성 김병국 김병기 김병수 김삼열 김삼웅 김서경 김선경 김선현 김성호 김성훈 김세원 김순단 김시명 김애영 김연옥
김영섭 김영조 김영주 김영훈 김예진 김완순 김운성 김운채 김윤경 김은미 김인호 김일옥 김일진 김자동 김정화 김종민
김종진 김지희(요가) 김지희(강변구) 김진현 김진후 김창한 김태녕 김희선 나종일 남상만 노다니엘 노명희 노영숙
노재훈 문병호 문성근 문시안 문인철 문향숙 민경선 민향선 박경목 박국호 박금란 박남식 박순경 박운학 박윤옥 박은희
박장우 박정철 박정희 박종분 박재홍 박창식 박태균 박해숙 방국진 방승환 방영철 배기성 배성호 백소망 변경순 서보현
서쌍원 설 훈 성기홍 성세정 손덕수 손 윤 손태수 손희영 송보경 송주은 송현권 신상균 신영숙 신은영 신재남 신종근
심소라 심용식 안희정 양경숙 양미강 양재원 양혜경 양호준 염락원 오상욱 오세홍 오여주 오우숙 오철의 오화자 유승희
유인경 유종일 유준상 유홍준 윤여운 윤영전 이구영 이기탁 이길옥 이덕일 이동철 이만열 이미경 이미희 이미희 이민석
이보나 이상덕 이석문 이석현 이성래 이성철 이승환 이은경 이은주해 이은주불 이원표 이정원 이정환 이종걸 이주한
이진규 이진숙 이찬희 이향중 이향자 이효재 이희수 임기상 임수빈 임쌍금 임옥상 임용석 임정희 임진택 임현영 장병화
장유식 장정수 전경미 전기도 정동익 정성호 정세균 정순영 정영진 정원채 정유경 정춘생 정춘숙 정희영 조수민 조정식
조휘숙 주영석 지광희 차영조 천병태 천정배 천혜진 최광호 최병일 최성자 최영희 최윤정 최은규 최정순 최정현 최진섭
최진아 최재호 최현철 최항열 하명호 하지완 한익성 함세웅 함 진 홍사립 홍소연 홍정석 황기흠 황수환 황은혜
회원 218명

♡ 단체 회원 ♡

광복회 김예진목사기념회 김학규오광심기념사업회 대한민국순국선열유족회 대한민국임시정부기념사업회 대한요가
스포츠연맹 대한요가협회 민족문제연구소 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 서대문형무소역사관 사월혁명회 서울시요가연합회
여천 흥범도장군기념사업회 우당이회영기념사업회 의암손병희선생기념사업회 인쇄출판새롬 전태일사이버노동대학
(주)에너지파트너 지광회 통일맞이늦봄문익환목사기념사업회 한가람역사문화연구소 한국여성의전화 한민족평화통일
연구소 헤림교회 화윤차례문화원

- 후원안내 / 회원가입 : (사)향일여성독립운동기념사업회는 여러분의 소중한 후원금으로 운영합니다.
- 후원계좌 : 농협 301-0230-6110-11 (사)향일여성독립운동기념사업회
- 가입문의 : 전화 02)924-0660 메일 herstory@herstorykorea.org
홈페이지 <http://www.herstorykorea.org/>
카페 <https://cafe.naver.com/herstory0301>
페이스북 <https://www.facebook.com/herstorykorea/>



앞으로 우리 아이들은 밥상에서
수산물을 맛볼 수 없을지도 모릅니다.



사라지는 **우리바다!**
사라지는 **우리미래!**

1인당 수산물 소비량이 세계에서 가장 많은 우리나라.
하지만, 바다환경 파괴가 계속되면 우리 아이들은
머지않아 생선이 사라진 밥상과 마주해야 합니다.

우리의 오늘이자 미래의 희망 - 바다.
수협은 바다를 보전하고, 청소하고, 쉬게 하는 일에 앞장섭니다.
수산자원 조성과 바다환경의 보전을 통해 우리의 오늘과 미래가
희망의 노래가 될 수 있도록 우리바다를 지켜갑니다.



『수산업의 공익적 가치』의 보호·육성은 국가의 당연한 역할

① 수산업의 공익적 가치는 전 국민이 함께 누리고 있습니다.

- 수산업은 수산물의 안정적 생산과 안전한 수산물 공급은 물론 영토 수호, 국토의 균형적 발전, 문화유산 보존, 경관제공 및 지역사회 유지 등의 공익적 기능을 겸비하고 있으며, 국가 기여에 없어서는 안 되는 중요한 산업입니다.
- 우리나라 국민 10명 중 7명은 수산업의 공익적 가치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고(72.1%), 10명 중 8명은 이를 유지·보전하기 위해 국가적인 정책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식(82.5%)하고 있습니다.

* 어업·어촌에 대한 국민 의식 조사(수산경제연구원, 2016)

② 수산업의 공익적 가치 강화, 수산자원 보호를 위해 꼭 필요합니다.

- 바다환경파괴와 남획 등에 따른 수산자원의 감소는 인류에게 재앙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 연근해 어획량의 60%, 49만 톤의 미성어가 생사료로 사용(2016)
- 바닷모래 채취 금지, 냉온배수 배출·간척·해상풍력발전소 건설 등 바다 난개발 제한, 중국어선 불법조업 단속 강화, 계통판매제도 시행, 휴어제 조기도입 등 적극적인 수산자원 보호를 위해 수산업의 공익적 가치를 강화해야 합니다.

③ 수산업의 공익적 가치 헌법에 반드시 반영되어야 합니다.

- 수산업의 공익적 가치 강화는 국민과 국가 전체의 공익을 증대하기 위한 것입니다.
-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하는 근본규범인 헌법에서 「수산업의 공익적 가치」 보호·육성을 위한 국가의 의무를 분명히 밝혀야 합니다.